

# 451년 이어온 주춧돌 극적으로 살려

## 고성군, 청간정 해체·복원 공사 우왕좌왕 ... 12개 주춧돌 중 4개 교체 → 전면교체 → 교체안함

### 공사기간 5개월 연장 불가피

고성군이 최근 관동팔경의 하나이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2호인 청간정 해체·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451년간 이어온 주춧돌을 전면 해체하고 새로운 주춧돌을 세우려다 도 문화재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보존하기로 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

고성군은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9월부터 이달말까지 청간정 해체·복원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선정되고 단청, 목공, 와공, 석공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사팀이 공사에 들어갔다.

고성군의 최초 계획은 12개의 주춧돌 가운데 육안으로 훼손이 심각해 보이는 4개의 주춧돌을 교체하고, 나머지 8개는 살리는 방향이었다. 그런데 도에서는 8개 주춧돌에 대한 석질조사비용 4천만원이 과다하다며 12개 전체를 교체하고, 그 주춧돌을 휴게소 옆에 전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기존의 주춧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청간정의 문화재적 가치가 상실된다며 모두 사용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석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12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강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군은 부랴부랴 동절기에 주춧돌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마치고 날이 풀리면 목재를 올리는 작업에 들어가 새해 5월에는 복원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지만, 주춧돌을 살리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5개월이나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향토사학자 김광섭 씨는 “청간정이 문화재로 가치를 갖는 것은 451년이나 된 주춧돌을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며 “이 주춧돌이 없을 경우 청간정은 마을에서 흔히 볼



지난 6일 청간정 해체·복원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수 있는 팔각정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문화재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향토사학자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

다”며 “도 문화재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발견해 다행스럽게 주춧돌을 살렸지만, 하마터면 큰일이 날뻔했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에 설계를 의뢰했는데 육안으로 훼손이 심각한 주춧

돌 4개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도에서는 12개 전체를 교체하자는 의견을 내서 그렇게 추진했었다”며 “결과적으로 12개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명호 기자



청간정 해체·복원 공사로 인해 모습을 드러낸 12개의 주춧돌들. 이 주춧돌은 1560년 간성군수 최천이 청간정을 중수할 때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청간정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이 정자의 수명은 저 주춧돌과 함께 영원하리라”

### 1928년 김용집 토성면장 청간정 중수기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러 비바람에 씻기고 마모된 데다 화재까지 만나 소실이 되어 겨우 10여개의 돌기둥만 우뚝 서 있을 뿐이어서 수백 년간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였다.

무진년(1928) 봄에 내가 본 면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큰 행사를 기념하여 옛 자취를 추억하는

때에 군수 김극일(당시 양양군수)이 잊어버린 역사를 깨우쳐 주는 계기가 있어서 선비들에게 의견을 묻고는 여러 사람이 계를 모으고 정자의 터를 살피 옛 터의 남쪽 곳(岬)에 청간정을 옮겨 세우기로 하였다.

한 군의 유지들이 힘을 합쳐 재물을 모아 이듬해 봄에 공사를 마

치고 이해 칠월달 모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아, 천년의 역사에서 정자는 반드시 그때그때의 모든 흥취를 기억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궤적이란 인생살이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니, 어쩌면 이렇게 한결 같으리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어가며 수리한다면 이 정자의 수명은 저 주춧돌과 함께 영원하리라.

### 청간정 연혁

- 김극기(金克己) '청간역' 시에 최초 등장. 창건 연대는 미상
- 탁신(卓愼, 1367~1426) '청간정' 오연절구 6수 전함.
-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만경정(萬景亭)이라고 함.
- 1485년 남효온의 '유금강산기'에서 만경루(萬景樓)라고 함.
-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만경루(萬景樓)라고 함.
- 1553년 홍인우의 '관동록'에 '청간정역의 정자'라고 함
- 1560년 간성군수 최천에 의해 중수. 청간정정자로 있던 것을 물개현 정보부대 자리로 옮겨와 청간정이라는 정자의 이름을 사용. 이때 사용한 주춧돌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 1662년 간성군수 정양이 청간정 및 만경루 중수.
- 1710년 간성군수 권익룡(權益隆)이 청간정을 중수하고, 만경루를 운근정(雲根亭)으로 변경함.
- 1842년 간성군수 정재용(鄭在容)이 중수.
- 1883년 화재를 입은 후로 다시 중건하지 못함.
- 1893년 7월 큰비로 초루가 무너져 내림.
- 1928년 토성면장 김용집(金溶集)등의 발의로 청간정을 현 위치로 이전 복원. 이 때 만경루와 청간정의 주춧돌을 우마차로 옮겨와 그 위에 청간정을 세움. 이때부터 1개의 정자만 존재하게 됨.
- 1953년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지시로 정자 보수, 현판을 개판.
-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
- 1980년 대통령 최규하(崔圭夏) 동해안 순시중 보수 지시. 1억3천만원을 들여 해체 중수. 휴게소 1동과 주차장 시설 갖춘. 현재 청간정 목재는 이때 설치한 것임.
- 1992년 공사비 3천6백만원을 들여 보수.
- 1996년 화장실 1동(6.1평) 지음.
- 1996년 5천만원을 들여 난간과 기둥 일부 보수
- 2000년 산불로 인한 일부 송림 소실로 소나무 식재
- 2007년 해안지역 산책로 설치